



루루

행복반려 평생플랜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농림축산식품부

“먹으면 안돼요!!”



알코올



반려견은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분해 할 수 없어 아주 적은량으로도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이 될 수 있으며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포도류



포도, 건포도, 포도 주스류 등은 반려견의 신장을 손상시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에는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각종 동물의 뼈

생선, 닭, 소의 갈비뼈 등

부서질 때 날카로운 형태를 띠는 동물의 뼈는 구강 내 상처 및 내부기관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유 음료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 소량으로도 반려견에게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독된 반려견은 안절부절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벌벌 떨고 열이 오르는 등의 행동적 증상과 구토, 설사, 갈증에 시달립니다.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에는 반려견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은 반려견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경련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설사와 구토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물을 계속 마시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카카오의 함량이 높을수록 반려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 있는 퍼신(Persin)이라는 성분은 반려견이 분해 할 수 없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동반한 위장장애로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반려견은 우유에 포함되어있는 우유당(락토스, Lactose)을 소화시키지 못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당이 없는 우유나 유제품류 이외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먹일 경우 담당 수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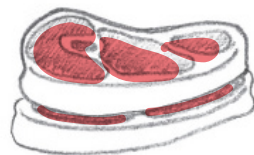
견과류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반려견의 신장을 손상 시킬 수 있는 인(Phosphor)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내포되어있는 식물성 기름은 반려견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돼지고기

날돼지고기에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파괴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여 오제츠키(Aujesky)질병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기고 심각한 간지러움, 경련, 마비, 의식불명의 증상을 보이다가 1주일 이내에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반려견의 인슐린 체계에 강한 영향을 끼쳐 급격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면 많은 양은 간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 생애주기표”



0 > 4 주령 > 8 주령

구충시작
한달에 한번

예방접종
종합백신5회, 코로나 장염 2회,
켄넬 코프 2회, 광견병 1회

2주령~12주 사이 사회화 기간

6 주령~8개월령

사춘기

12 주령

10 주령

2주령~12주 사이 사회화 기간

10 개월령~1살

성견이 되는 시기
대형견 2살 이상

8 살

노령견이 되는 시기
대형견 6살

15 ~20살

일반적인 평균 수명

노령기

*광견병

광견병은 1급인수공통전염병이면서 법정 전염병으로 따뜻한 피를 가진 모든 온혈동물은 광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국으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으로 폐동맥과 심장에 기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며, 모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매달 예방약을 섭취하거나 발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필요해요!”



중성화는 수컷의 경우 고환을 제거하며 암컷의 경우 난소 또는 난소와 자궁을 모두 제거하여 출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암수 모두 중성화 수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동상의 문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암컷

첫 발정 이전 중성화 수술할 경우
유선종양 95% 예방가능,
자궁축농증 예방 가능

수컷

유실 예방 가능
발정기의 암컷이 주변에 있을 경우
그 냄새를 따라 집을 나가기도 함
실내에서의 마킹,
고환과 전립선 관련 질병 예방 가능

“종합검진도 해주세요!”

종합검진은 반려견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초기 상태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견이 된 이후 최소 2년에 한번, 노화가 시작된 이후(소형견: 8~10살, 대형견: 7~8살)부터는 최소 1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 별다른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들이 있어 종합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어요!”

노령화의 속도는 성장 속도와는 달리 개체별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견종 인 경우는 8살에서 10살부터 노령견에 속하고, 대형견종의 경우는 노령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어 6살 정도부터 노령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견은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식생활과 운동량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변화를 보이며,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 건강과 행동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현상은 반려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보호자는 노령견과 생활할 때 노령화에 따른 행동변화나 건강변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노령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견을 대하는 보호자의 마음가짐과 반려견 상태에 따른 적절한 도움입니다.

예) 노령화로 인한 시력 소실 : 집안 내부에 설치된 가구나 물품을 예전 상태로 유지하여 노령견이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함

치매로 인한 배변 장애 : 반려견 전용 기저귀를 매일 여러 차례 갈아줌

노령견에게 발병되기 쉬운 질병

관절염, (양성/악성) 종양, 치매, 위장장애, 난청 및 귀먹음 (Deafness), 시각장애 (Vision problem), 치아 관련 질병, 간 및 신장 질환, 심장질환, 호르몬계 질병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증상

배변을 가리지 못함, 변비 또는 설사, 호흡이 가파르면서 호흡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임, 기침, 허약함, 먹고 마시는 식욕의 변화, 몸이 굳거나 절룩거리는 현상, 잦아진 짖음 또는 하울링 (소리 내는 행동, vocalization), 평소와 다른 공격성 및 행동 변화, 몸무게의 급격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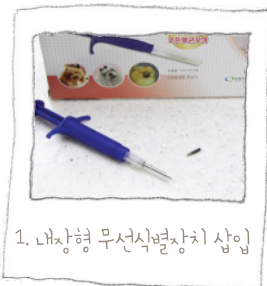
“작고 귀엽기만했던 토리가
이제는 쿠싱이라는 질병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배변 실수도 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기쁜날도 슬픈날도 좋은날도
그리고 아픈날도 서로 보듬어주며
평생 함께하는 것이겠지요..?”

“동물등록! 해주세요!”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할 경우 시청, 구청,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등록·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유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 3가지 중 하나 선택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반려견이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손상이나 분실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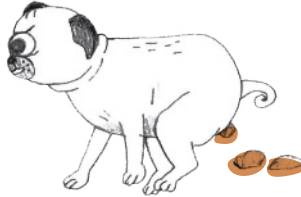
“2개월은 너무 어렵요!”



어미와 일찍 분리되는 경우 어미의 모유로부터 충분한 항체를 공급받지 못해서 면역체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어미와 동배의 다른 강아지와 함께 생활 하면서 적절한 사회화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형제들과 어미의 영향이 반려견 평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변교육!”

알려주세요! 배울 수 있어요!



강아지는 생후 2개월령 정도가 활동적인 행동반경을 갖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배변교육이 가능합니다. 배변교육 시 야단치면 배변의 행동 자체에 대한 꾸짖음으로 받아들여 숨어서 배변을 하거나 배변을 먹는 등의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배변 실수 > 소독용 알코올 (예: 80%에탄올)로 냄새 완전히 제거 (방향제는 개의 후각에서는 배변의 냄새가 날 수 있음) > 배변하는 시간대 파악 (예: 밥을 먹은 직후) > 보호자가 원하는 배변장소에서 놀이 등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배변을 유도 > 성공하면 칭찬 (간식을 줘도 좋음)

사이좋게 평생 살려면 “서로 알아가야 해요!”

반려견과의 좋은 관계형성은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반려견이 그러하듯 보호자도 반려견의 행동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많은 문제행동은 불안감과 공포에서 시작하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거기 놀아주세요!”



장난감

육체적, 심리적 에너지 소모가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기능성 장난감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반려견이 기능성 장난감을 갖고 놀 때에 간식 또는 사료가 반려견에게 조금씩 제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있는 강아지라면 간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먹어도 괜찮은 개껌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반려견의 넘쳐나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매일 실시해줘야 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산책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간식을 이용하여 나란히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시 지켜야할 예의

1.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가슴줄 또는 목줄 반드시 사용
2. 반려견이 배변할 경우 배변을 깨끗하게 처리
3. 반려견이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서 소변을 보았을 경우 즉시 수거

* 위의 세 가지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동물을 산다면



그 이면에는 죽을 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반려동물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반려동물,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PLEASE ADOPT, DON'T BUY DOGS.

Love and care them forever



www.ekara.org | 이메일 info@ekara.org

페이스북 /kara.animal | 트위터 @ekara_org